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명절만 되면 심각한 갈등에 빠지곤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祭祀) 문제이다. 물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성도라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를 드리며, 가족들간의 교제와 시간을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에서는 제사를 효(孝)와 연결시키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과 관습 때문에 가족간의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마10:34-36).

사실 명절 때마다 겪게되는 제사에 대한 문제는 어떤 이론이나 논쟁으로 되어질 일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선, 영적이고 정신적인 대립의 문제이며, 감정적인 대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다. 가족간의 감정적인 불협화음이 갈등을 격려하여 적당히 모면하는 공여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예 가족과 친척간의 화목을 위해 신앙적 태도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결국은 '가족과 친척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는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리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들이 내 말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마10:37).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적당한 지혜와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이다. 성경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새기던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결을 더 나아가 소위된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누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추석 가족예배 모범

찬 송 305장 '사실에 불바람 불어있고' 다같이
성경봉독(교독) 시편 18:49 다같이
대시 '감사와 찬양' 인도자

- ① 우리 주를 향하여 감사해야 할 것
-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가정에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자
- 주의 진리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죄악의 근에서 지키심을 감사하자
- 주의 성령이신 인자하신 손길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하자
- ② 우리가 주를 향하여 찬송해야 할 것
- 주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되게 하자
-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목표가 되게 하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 다같이
나눔 율 한해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다같이
더 사랑하지 못한 일들 나누고 격려하기

교회 인사

교회는 9월 정기당회를 통하여 교구 지도와 교육부장의 이동을 결정하였다. 1교구 정현민 목사, 3교구로 정형성 목사, 7교구로 김인식 목사, 9교구로 이준경 목사, 15교구로 김형대 목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형수 장로는 청년1부 부장으로, 문홍구 장로는 초등부 부

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그리고 예배위원회 지도는 김병대 목사가, 장년2부는 임재훈 목사가 새로운 분야에서 섬기게 되었다. 또한 청년1부의 부장이었던 김준원 장로는 본인의 청빙에 따라 장로직을 사임하였다.

청지기 세미나가 한달 앞으로 10월 11일-13일, 충현교회 제직과 일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연구원에서는 충현교회의 모든 제직과 일꾼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청지기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세미나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제직과 일꾼을 위해서 저녁시간에만 실시하고, 교역자들을 위해서는 오전에 토론 시간을 마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도 마련되는 청지기 세미나에 충현의 모든 제직과 일꾼들은 은혜받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개인 스케줄을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일 자	시 간	비 고	강 사
10월 11일(수)	오후 7:00-9:30	수요2부예배대체	위트머 교수
10월 12일(목)	오후 7:00-9:30	전체	위트머 교수
10월 13일(금)	오후 7:00-9:30	금요집회대체	위트머 교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선교팀 모집

고.대.청 젊은이 중심, 사역국가와 분야를 스스로 결정, 9월까지

선교위원회는 충현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선교는 어떤 지시에 따라 사역하는 소극적인 선교가 아니라,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스스로 사역국가를 결정하며, 스스로 사역의 형태를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형태이다. 또한 충현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년 동안 받아야 하는 LMTC(지역선교훈련원) 훈련을 한 하루로 압축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학업으로 인한 제약들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번 선교 준비를 통해서 충현의 젊은이들이 창조의적이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롭게 제시된 선교팀 구성 및 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길 바란다.

- 모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교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형편에 따라 보조할 예정임) 기도후원자 명단 각 1부.
- ③ 선 고 지 :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제한
- ④ 인 원 : 단기간선교 5명~10명 이하 / 단기평신도 선교사팀 3명 미만.
- ⑤ 기 간 : 단기선교팀은 10월~20일 미만 / 단기평신도 선교사팀은 6개월~2년 미만.
- ⑥ 구 성 원 : 남녀 비율/고.대.청 비율/외전부/교사참모/고등부 담당교사 포함.
- ⑦ 시 기 : 각 팀의 사역계획에 의거하여 결정
- ⑧ 제출기한 : 9월30일(토)
- ⑨ 각 팀은 선교위원회의 심사 후 파부를 통지

*기타문의 사항은 선교위원회(356-8)

- ① 지원자격 : 고등학교 이상의 LMTC 수료자(10월3일 압축훈련 참가해도 가능)
- ② 제출서류 : 사역계획서(선교지, 선교사 내용,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서술) 재정계획서(재정은 개인이 후원자를 발굴하여

정기제직회

오늘 찬양예배후 본당에서

목·경집합

가롯유다의 후세대

여 성 기 (목사, 10교구 지도)

종알같은 빗줄기가 부패한 도시의 오염을 향해 박힌다. 크고 작은 나무와 풀잎 사이로는 옅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잔잔히 내려온다. 그곳에 또 하나의 세계가 공존한다.

균형과 조화를 이룬 숲속의 작은 길, 오목한 흙그릇 속에 담긴 평평한 수면위로 돌그림자를 그리며 떨어지는 예쁜 빗줄기. 오열된 인간의 세속 도시 속의 감추어진 아픔도 이렇게 씻을 수만 있다면... 마당 계 측에 수운을 넣고, 참기름 속에 향상을 넣은 물결진한 인간들이 이렇듯, 온30에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의 후세대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랑들... 21세기 초점을 무대로 사는 그들속에 더더욱 적적 부패한 인간의 본색이 드러난다. 잠시도 온존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 실재가 아니라서 끝까지로 전체를 앗고 또 앗아만 새 존재가 될 타인테 스스로 무덤같은 입에서 거품처럼 아들을 뱉어내며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는 회색 망명같은 현실은 인간이!

오늘도 오열된 세속도시 한 가운데서 거침없이 아들을 쏟아내는 절망스런 가롯 유다의 후세대들에게 임침을 가한다. '주님의 성혈(聖血)이 영혼의 토양이 되기를...'

WILL OF GOD

(Acts 21:10-14)

Then Paul answered,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Toward the end of Paul's third missionary journey, he and his crew stopped off at Caesarea and stayed for some days with Philip the evangelist. During their visit, a prophet named Agabus came to see them. He took Paul's belt and bound his own feet and hands, and said, "This is what the Holy Spirit says: In this way the Jews at Jerusalem will bind the man who owns this belt and deliver him into the hands of the Gentiles" (v. 11). Agabus was a trustworthy prophet; he was the one who accurately prophesied of the famine to come in Jerusalem (see Acts 11:28). His prophecy not only confirmed what the Spirit had already given to Paul, but also matched what the disciples had said to him and his friends during their stay in Tyre, "they kept telling Paul through the Spirit not to see foot in Jerusalem" (v. 4). When Paul's friends, as well as the local residents, heard Agabus' prophecy, they begged Paul not to go up to Jerusalem. But Paul wasn't influenced by their appeals. As a matter of fact, he rebuked them. For he was compelled by the Spirit to do the will of God, not the will of man. And since he would not be persuaded, his friends fell silent, remarking,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v. 14)!

Everyone who is a Christian wants to practice faith in their life. You aspire to let the Holy Spirit teach and guide you in the direction of God's will. The sad thing is that whenever some Christians get the Holy Spirit's information, and it turns out to be wring, they don't want to go. When Paul's friends, Christian friends, heard from the Spirit that he was to have a hard time in Jerusalem, they followed their will, not God's. Paul knew God's will, "And now, behold,

bound in spirit, I am on my way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except that the Holy Spirit solemnly testifies to me in every city, saying that bonds and afflictions await me. But I do not consider my life of any account as dear to myself, so that I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which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to testify solemnly of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Acts 20:22-24). Amen!

Do you understand what Paul is saying? Christians always say they want to go God's way, but when the Holy Spirit starts leading them into difficult areas, they start going the other way. They think the other way is God's will. Do you grasp how much God's will is hard? The Holy Spirit explained to Agabus exactly how hard it would be for Paul to go to Jerusalem; it would be like him having his hands and feet bound together (v. 11). Can you imagine trying to get around, yet alone trying to communicate to others in this position? Without doubt, God's will for Paul was not going to be an easy adventure, but it was His will. And Christian living is about doing God's will.

All the Christians that surrounded Paul, including Luke, implored him not to go to Jerusalem. The "we's" in verse 12 represent them! They believed hardship wasn't God's will. They took the Holy Spirit's teachings and twisted them to fit their will. They were wrong, and Paul knew it. He responded to their pleas by saying, "What are you doing,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For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even to die at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v. 13). Paul basically told them that he loved God more than himself. And that's the will of

God!

Who was Paul? He was a real minister, a pastor, who followed God's will. He loved Christians, but overall He loved the name of the Lord Jesus. His life was all about doing the will of God. Like Jesus, if it was possible to go another way, he'd prefer it, but if not, he wanted God's will to be done. Jesus related the will of God concerning His own death and resurrection to His disciples. "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They will mock Him and spit on Him, and scourge Him and kill Him, and three days later He will rise again" (Mk. 10:33&34). Jesus knew that He and His disciples had to go to Jerusalem. His disciples didn't want Him to go. But Jesus followed God's will. Paul knew that he and his friends had to go to Jerusalem. His friends didn't want him to go. But Paul followed God's will.

Jesus and Paul shared similar feeling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Jesus prayed, "Father, if You ar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Lk. 22:42). And a similar account is also read in Matthew 26:39,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Paul felt the same way. He didn't like hardship. If God could arrange his circumstances another way, he would favor it. But if God's will was unchangeable, then, he wanted God's will. Are you a Christian? Do you live your life under the will of God or your own will?

Paul's missionary friends and some new friends from Caesarea followed him to Jerusalem. Upon

their arrival, Paul was graciously welcomed (see Acts 21:16 & 17). After Paul did the will of God, the multitudes of people hated him (see Acts 21:36). Those who didn't know Jesus wanted to kill Paul. The same Jerusalem, mostly the same people, who killed Jesus now wanted Paul dead. The same thing happened to Stephen. He did the will of God, and was stoned to death for it. He didn't hate the enemy, but like Jesus, forgave them, "They went on stoning Stephen as he called on the Lord and sai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en falling on his knees,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Having said this, he fell asleep" (Acts 7:59-60). This is real love from a real minister!

Before his conversion, Paul was hugely responsible for Stephen's death for killing the best minister in the world. At the time, he didn't know the cross. Once he found the cross, he wanted to do the will of God in Jerusalem. He was a persecutor, but when he understood the cross he became persecuted. He became a sacrifice because this is the will of God. What is the will of God? For the sinner to change into a child of God, not for his own will, but for the will of God!

My dear Choong Hyun friends, God created humans for the purpose of His glory (see Is. 43:7). Glorifying God is the purpose for all human life. To find your purpose, to glorify God, you must do the will of God. The will of God requires you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 calling on His name for all your cares! The will of God is ultimate! Recognize its hardships, so that your will may always be in accordance with His. Amen. 



김 성 록 목사

주의 뜻대로

(행21:10-14)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바울의 세번째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 그와 동행했던 승무원들은 가이사라에 머물렀고, 전도자 빌립과 함께 며칠 동안을 지냈습니다(8절).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바울의 벨트로 자신의 발과 손을 묶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입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11절). 아가보는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찾아들 기근에 대해 예언했던 사실이었습니(행11:28). 그의 예언은 성령이 바울에게 예언한 것을 단지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일행이 두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말하라고 했던 것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4절). 지역 주민들과 바울의 친구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염려가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에 의해 이끌렸으며, 결코 사람의 뜻에 의해 결정하지 않았습니(행11:28). 그의 친구들은 잠잠했고,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14절).

고난을 피하지 않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시를 감지하게 될 때, 헛된 것에서 면하고, 그 길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의 친구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성령에게 들었을 때, 그들은 예언하는 이의 뜻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이 그 안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못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2-24).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이 힘든 지역으로 인도하기 시작할 때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어려우십니까? 성령은 아가보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치 그가 스로손과 발이 묶은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11절). 여러분은 이러한 위치에서 비록 혼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변에 알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의심이 없다면, 사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안락한 도로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함

누가를 포함하고 배제할 수밖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언했었습니다. 12절에 나타나는 ‘우리’는 그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뜻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왜곡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실수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간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13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순종함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사역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였지만, 전제적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

일 어려움을 피해 가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도,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쪽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도 그는 하나님께의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였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관전시켜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어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뱀으며 채찍질하고 그들을 이같이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막10:33,34). 예수는 자신이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그와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가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포기함

예수와 바울은 비슷한 느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갓세마네의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 그리고 비슷한 기록이 마태복음 26:39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만일 만만치 않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시려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쉬운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는 그것을 선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과 같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거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뜻 아래에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일함

바울의 신도 동역자들과 어떤 새로운 친구들은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 바울은 웅장한 환영을 받았습니(행21:16,17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많은 무리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행21:36을 보십시오). 바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스테판에게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고, 그것을 위해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행7:59,60). 이것이 진정한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가 최신허기 전, 바울은 스테판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역으로 여겼습니(행7:59,60).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발견한 이후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박해를 가하는 자였으나, 십자가를 이해한 이후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행7:59,60).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자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증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사43:7).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애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돌보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험난한 것이라고 향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뜻이 향성 그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망글까지

우간다 단기교를 다녀와서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자라길

이원석 (우간다 단기교원)

2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 팀은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여 RTC 신학교에서 여정을 풍요 다음날부터 마신다, 라카이, 와

타 그리고 RTC 신학교 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와는 겉모습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하나 하고 두렵기도 하였지만 우간다에 가기 전 지난 4월부터 타 사역을 준비할 때부터 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들 앞에

서 찬양과 위선, 인형극, 마임 그리고 공동체 훈련으로 결별기인 우리와 너무나 다르지만 주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공동생으로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을 증거 할 수 있었습니다. 마신다 지역은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지역인데 우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모기에 물리지 않았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비를 뿌려주시고 시원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향부지대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카이에서는 트럭에 타고 여가져기 이동하며 초정회를 알리고 다녔는데 집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흠뻑뻑을 뒤집어써서 옷이며 머리며 누렇게 되어도 다들 기쁜 마음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찬양에 맞춰 춤추며,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알리는 모습에 서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역지역인 파타에서



는 평소에도 다 찢어지고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신발도 안 신던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대단한 깨끗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다들 그들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예쁜 차림으로 나오려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도전을 받았습다. 그곳 목사님의 부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온 이른바 교회인들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다들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우리가 뭐라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손을 힘껏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서로 손을 놓지 못했고 그저 감사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만 쳐다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 찬양하고자 서로 말하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우간다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어떤 씨든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졌을지라도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밭이 옥토로 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곧게 자라나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영혼들이 되기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찰전도회 전도집회



지난 8월29일 경찰청 607차경대 전도집회에서는 65명 참석자 중 22명이 결신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회원들이 이들의 결신을 돕기 위해 28명이 참여하며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 전도회 사역의 현장에 참여해 보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된다. 그들의 열정을 할애하여 준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통해 전도의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하고 그 효과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성령충만함을 힘입은 기도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국방의 의무대신 전·외경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아무나 누구나 어느 교회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사역이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주길 사라는 마음을 더욱 갖게 된다. 충주경찰청, 경찰청, 서울지방 경찰청, 자경대, 서초서, 강남서 등 올해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귀한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양육을 할 수 없음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집회를 마치는 아쉬움이 컸다.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나 한정된 한정된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려 할 책임은 충현교회 교인들이 함께 짊어질 몫임을 깨닫게 된다. 참, 9월26일에 제3기동대 남부지부대 전도집회가 오후5시에 있으니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국정집사)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할레루야! (주간흥현)이나 (흥현의 만나)는 무지하고 착박했던 마음밭의 신앙을 기르는데 축복한 봄비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담담한듯하면서도 단호하게 흐르는 김성관 목사님의 설교문은 주저하는 저의 영혼을 끝내는 구원에 이르는 사역의 바다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잔잔한 강동의 물결로 밀려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로부터 싱그러게 묻어나는 성령의 향기를 교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작은 은혜는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듯한 감사는 주님의 몫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자리 엠도는 감시의 자투리는 저의 빈약한 가슴에 고마웁으로 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안으로 간직하기엔 벅찬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얀 담장의 부끄러운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용기를 고한 걸 보면 말입니다. 큰 허물은 아니겠지요? 주님의 빛과 사랑을 머금고 이 낮은 곳까지 찾아온 (주간흥현)과 (흥현의 만나)가 진정 고맙습니다. 더욱더 향기로움 흥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보낼 것이었으나 한 수인의 사십평생 저를 드리는 순수한 신앙고백으로 그 고마움을 담고 싶습니다.

어느날
햇살처럼 다가와
당신을 알게 하신
주님!
당신이 돌아보심에 넘치는 은혜되어
절망과 비탄이 은밀히 도사린
욕망의 절곡에서
나로 하여금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였나이다
지난날
당신을 필박한 이 참회의 잔에서
"당신의 미소" 영원히 거두지 마소서
슬픔을 감당하기엔 가발뿐 영혼이여이다
광야의 날들이
가나안에는 이르지는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보마냥 방황했던 불신아
지금은
커다란 부끄럼되어 고개 숙이게 하나이다
높고도 잔란한 하늘보좌에서
낮고도 추한 십자가로 내려오시어
가시란, 못 만하시고 창 찔려워 죽어가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나이다
골고다 언덕위에 붉은 선혈 뿌리시던
당신의 그 저절한 모습이

메마른 가슴에 화인처럼 각인될적엔
몽마랑다 어찌 그 저머지던지
그 사영의 힘아래
나는 죄인일 수 밖에 없었나이다
칼감한 길에서 바둑대던 내 욕망의 실루엣은
당신의 빛을 사모하며
마른 땅위에 단비로 부러질 그날을 애대우며
눈물이 되고 말았나이다
새벽 종소리는 은은히 울려 퍼지며
여명이 꽃처럼 피어나는 가운데
아들은 힘없이 쓰러지고 마나이다
당신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신을 알기 전 도다른 나에게
낮게 낮게 울려가네
당신의 종소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소망이라고
조용히 고백하나이다
아멘

좌절의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은 변화가 큰 믿음의 혁명이 될 수 있도록 감히 흥현의 기도를 구하며 이만 줄이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시길...

여름방학을 마치며

김진영 (대학부 3학년)

참 감사한 여름방학이 끝났다. 여러 사역을 속에서 은혜도 이제는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때다. 수련회와 사역 등을 다녀오며 공동적으로 가져왔던 기도제목이 있다면 기쁨이었다. 예수님은 작은 들꽃만 송이에서도, 작은 새 한 마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싶었다. 내 온 몸으로 이 세상은 온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기쁨에 휘감기고 싶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를 을 어찌 모두 입으로 담아내며 그 아름다운 조화를 어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도 크신 창조의 손길을 표현할까마는 그래도 느끼고 싶었다. 하나님은 그런 내 앞에 계시고 동행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사역 속에서만이 아닌 주일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가눌 수조차 없다. 어떻게 서야 할까.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지체로 땅을 세우고자, 명철로 하늘을 굳게 버리고, 그 지식으로 행해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나는 온전히 그분을 표현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은 이 작은 나에게 집중하시며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나는 어떤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떤 기쁨으로, 혹은 어떤 안타까움으로 내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예배시간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펼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역의 은혜에서 주일의 거룩함으로, 주일의 거룩함에서 매일의 산 제사로 인도하시려 한다. 기억하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날 주목하시며 바로 내 앞에 계신다. 내 이쪽 그분 앞에서 다 쓴 것을 바라보며, 내 이쪽 그분 앞에서 졸고 있더라.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기 싫어 잠자리를 뒤적거릴 때, 그러다 늦어서 한 번 퍼보지도 못한 성경책을 가방에 집어넣을 때, 화날 때,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밤늦게까지 TV보다 잡자리에 누우며 좀 이따가 기도할까요 하던 내심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나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민감하려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쁨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민수기16:40).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우리이다. 약화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며 축복이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분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전도를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본래는 내 것 아닌 주님 것을 드린다는 말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는 기쁨으로 맞고 계시는 분이다.

이제 나는 조금씩 그분 앞에서 내 편한 모습대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나를 추스리라 한다. 여전히 나는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에 눈을 흘리며 아파 하지만 하나님 위로는 손길로 나는 다시 일어나 24기를 결심하고 기도한다.

매일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거룩한 하루하루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고백



△왼쪽에서 첫번째가 이미현 저

이미현 (대학부 2학년)

살아 계셔서 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행히 고백하였던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죄인으로도 있지 못했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보게 하셔서 참 감사드려요. 나의 임은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은 주님께 정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저에게 창세부터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에 무어라 표현

해야 할지... 제 짧은 단어실력은 표현할 수 없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하였던 모습들, 마음의 고백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아는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둔한 나의 모습들...이것만은 안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재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선포 대담할 수 있기를,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나의 연약한 실력을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 주시길... 내 안에 굳어져 버린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려요.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8월 19일 비오는 아침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픈
당신의 딸 미현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몽골단기성교를 다녀와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이리라



오 남정 (대학부 3학년)

단장 임무전 장로님, 지도 이종대 목사님, 민병은 전도사님들 1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나는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11박 12일) 몽골단기성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단기성교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비전의 확립과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의료선교에 대해 조금이나마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분문과 현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든 못 전하지 않든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복음과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며,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내게 붙여진 귀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준비된 영혼들을 통해서 나는 비로써 마음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역기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철송사역과 병원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전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나

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 제시와 주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역기간 중에 현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도목사님들을 통해 들려주셨던 놀라운 말씀으로 눈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순간순간 체할 수 있었던 것들을 또한 주님께 감사했고, 고개 숙어 무릎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몽골 땅 구석구석에 복음으로 물든 거룩한 땅이 되게 기도하는 것과 몽골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역 감당과 헌신된 몸과 마음을 위해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도제목이자 저의 임무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몽골이 복음의 땅으로 물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만평

글 · 그림 / 김범현



일터에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의 청지기로서

이 재 호 (집사, 청년1부 교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배웠다. 시간, 물질, 건강, 은사(직분, 재능)의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맡긴 모든 것을 그 주인의 위임에 부합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다시말해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모든 영역에서 그 일을 다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며 다만 해야 할 것을 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이다.

사회에 취업인으로서 첫발을 디딘 것은 1991년 6월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도 옮기고, 사업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과 비전이 확정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 그당시는 나의 이런 생각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막연한 것이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거니와 그 생각은 막연한 나의 기대일 뿐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기와 나의 기대와 현실 속에 나의 모습 사이의 괴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서 이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자라자처럼 점점 더 멀어져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다. 그 무거운 군인이 어디에서 오는 지조차 모르고 헤매면서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의 이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나에게 양육훈련은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는 은사의 시간이었다. 3-4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벌써 만5년이 다 되어갔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실



업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한 기회일 것이다'는 생각과, '언제나 나와 네 가족의 생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 IMF의 경제 위기가 예외없이 우리 회사에도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늦게 지급한 적이 없다. 물론 경제도 해고시킨 일도 없다. 지금도 회사가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이 조금하여 답답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지금까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내가 잘 나서 한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청지기로서의 나의 생계를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믿는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도 기도한다.

"살아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 가치관의 도전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소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이혜경 (성도, 1교구)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단지 두렵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에서 전도하고 봉사했지만, 감사함없이 의무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다보니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속속들이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원하면 전정 감사함으로 전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기쁨 없이 전도하는 이들에게 꼭 이말을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전도하는 형제·자매들, 전도는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니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이지 칭찬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복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소홀해서는 안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시간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예수님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것을 때 주중에 몇번씩 병원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는 이들을 보고 친사라고도 느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통해 병고와 가난한 이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 퇴원하여 집에 돌아왔지만 노구의 몸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치고 눈앞에 닥친 일을 먼저 해결해보니 병원에서 맘먹었던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함께 전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눔 전권같은 없었어

병원에서

정옥련 (집사, 9교구)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보았어요?" "예, 예수님 잘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옛날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지금요." 중앙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만난 50세의 그분은 교통사고로 어깨뼈가 으스러져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하나님께 빌었다고 했다. '주권충현'을 돌리면서 조심스럽게 건넌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신앙고백을 하듯 옛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봉사를 했던 때를 얘기했다. "그런데 왜 회교를 믿었어요?" 어떤 상처로 인해 교회생활에서 멀어지던 20년이 지났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운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많이 흐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만난 그분을 성령께서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번째 만난 날 물어 두었던 상처와 하나님을 떠난 후의 생활을 얘기했다. 방황하다가 친구들과 집에 다녔지만 열매를 하려던 하나님 아버지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작년에 온 가족의 이름을 절다 올랐다고 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조금만 일찍 만났어도 좋았을텐데... 깊은 한숨속에서 세상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 구교 정해성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여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귀면하니 그분과 세상신 사이에서 두려움으로 망치되던 그 옛날의 믿음이 마음에 있었기에 모든 말씀을 잘 받아 들였고 여러번의 만남을 통해 성령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긴 세월 동안 누구하나 교회에 가는 사람이 없었던라고 섬세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영혼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가슴이 아왔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땅끝까지 불타고 싶어 버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임을 보았다. 지금 믿음을 회복한 그분은 동네 병원에 오 옮겼는데 주일에 외출증을 받아 교회에 가시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신다고 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뿜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싶어 버리지 아니하였거 하였노라"(사41:9).

오 집사님께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찬양예배시간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앓아 있는 언니의 뒷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리네요. 지난 여름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못할 얘기까지 다 들어주면서 위로해 주신 것이 참 힘이 되었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야 약해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모습... 가끔 보시죠? 저도 가끔 그와와 대화할 때 강도를 받고, 정말 놀라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남편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감사할 일이 또 생각나네요. 몇 년 전, 기억나세요? 제가 선택을 임신하고 있을 때 IMF 때문에 남편의 월급이 점점 줄어 아이들 학원도 다 끊고, 막 고사는 일에만 매달리던 날들이었죠. 조금 사本是 씹어 떨어지던, 없는 돈 때문에 쌀 살 걱정을 하던... 그땐 언니네도 하루 밥이 하루 먹고 살던 시절이었죠. 저희보다 더 힘겹게 사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우연히 사는 걱정을 털어놓던 내게, 인듯 쌀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언니가 저에게는 아직도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심심과 언니님에게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

사랑하는 언니! 올 여름은 한 번 만나지도 못한 채 지나가네요. 항상 웃는 얼굴로 반기던 언니의 모습이 기억나요. 언니! 힘내세요. 가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김포평야를 가로질러 갈게요. 노란 들밭도 보시고 따뜻한 언니의 가족들과 맛있는 수제미도 먹고 싶어요. 언니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언니와 양심심을 늘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는 것 아니요?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14교구 이미숙 집사

내게 맡겨주신 어린영혼

임 현 진 (초등부 교사)

올해 교회학교에서 초등부의 4학년을 맡게 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경계도 없고 재미있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해서 선생님을 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순종함으로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성경지식이 탄탄한 우리반 아이들은 남자아이 4명, 여자아이 3명이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려 할텐데, 지금 우리반은 사귀어 생겨 근처 교회에 나가는 아이도 있고, 이사를 하게 되고 연락이 안되고 하여 처음의 7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아이들이 안나오는 것이 나의 부족한 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지.

아이들은 줄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5명이자 모인 우리의 분반 공부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 우리를 보고 계심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 시간을 통해 나와 아이들도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반 아이들, 여전히 기도시간도 늘 안감고 나눈데 쳐다보고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과 우리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마음을 감히 짐작해 본다.

요즈음 스스로 찬송가를 찾아서 부르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최 경 애 (소년부 교사)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일인데, 교사로서 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배워야 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 때가 많다. 특히 이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분반 성경공부도 나를 잘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깨닫게 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며 내 맘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 자기의 강령대로 장장권의 축복을 배풀려는 아버지 이삭(창27:4), 작은 아들에 대한 편애와 하나님 말씀의 오해(창25:23)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려는 어머니 리브가, 장자권의 무지와 포기, 이방인과의 결혼 등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가.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내 눈 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만 생각하여 그 축복을 갖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자기의 육신만을 채우기 위해 행하는 야욕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욕에게 하나님의 연약을 이루시기까지 함께하시라고 기뻐 약속해 주신다. 그러나 야욕의 반응은 어떠한가? '나를 지켜 주지'라는 뿐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평안하게 잠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되실 것'이라고 조건적 서원을 한다. 이 얼마나 무례하며, 교만하며, 무식한 자의 대담인가!

이렇게 문제 투성인 야욕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욕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연약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기 위해 오늘날도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박 효 진 (유년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보내 편지 잘 받았어요, 선생님.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여름도 지내고 가을이 다가오네요. 가을을 맞이하여 더 건강히 바래요.

저는 얼마전에 방학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가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요새는 친구들이 잘 안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반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잘 안오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모두 바치기 않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요점이기 하나님한테 기도할게요. 선생님. 요점은 이제부터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닐게요. 전도사님 말씀도 더 잘 들을게요. 또 기도도 이제 집에서 매일매일 하는 어머님이 될게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오진 울림

진리의 샘

신명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 모두 신명기에 담겨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들로 먹을 만물이 먹으라는 유혹에는 신8:3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도전에에는 신6:16을,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는 유혹에는 신16:13을 각각 인용하셨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능력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살펴볼까요?

우선 신명기는 헬라어 70인경과 라틴어 번역본에 따르면 '듀트라도미'(Deuteronomy/두번째 책을 읊다)라고 하고, 히브리어에는 '엘레 하데바림'('elch haddebarim/여호와와 말씀하셨다), 또는 '데바림'(debarim/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신:1).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는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번째 설교는 1장-4까지이고, 두번째 설교는 5장-26까지이고, 마지막 세번째 설교는 27장-3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필수 수업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편 한편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 편의 말씀으로 말이지요.

또한 분기기를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하는 장소는 가나안 땅 맞은편, 조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요단강의 오른쪽인 모압 땅입니다. 지금 이곳에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40여년의 긴 세월을 방랑하고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의 뒤를 잇는, 새로운 2세대입니다. 이들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돌아가기 위해서 대하고 있을 때, 모세가 출애굽시절에 받았던 율법을 새롭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세대의 실패를 경고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촉구하는 유언과 같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적 지도자와 마지막 유언이 선포되는 분기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대할 때, 반드시 '순종'이라는 시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모든 내용을 평면적으로 읽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 그러합니다. 사랑은 곧 순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며, 참사랑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신명기에 의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인듯 스치기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상관사님

LMTC는 단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이다.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교의 비전을 품은 젊은이들이 훈련생으로 있다. 종종은 환관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더 큰 도전을 주기도 한다.

그분들 중에는 상관사님이라고 불리는 눈에 띄는 권사님 한분이 계신다. 상관사님은 부스마른 짧은 머리에 면티와 청바지 혹은 반바지를 즐겨 입는 좀 독특한 분이시다. 의상때문인지, 비슷한 연세의 권사님들보다는 젊은이들과 더 친하다. 행동 또한 젊은이들 이상으로 힘차다. 항상 앞자리에서 강의를 들으시며 복습도 하시지 늦음까지 해가신다. 나 역시 상관사님과 금방 친해져서 '상관사님의 이름' 속 기억이 있었다. LMTC에서는 평가보다 해외훈련을 필수로 한다. 이번 학기도 예외없이 해외훈련이 진행됐다. 지역이 사막지대인지라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었지만 역시 상관사님은 해외훈련도 참가하셨다. 내리지는 땀방울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다. 특히 수단인 교회에서 찬양할 때의 힘은 놀라웠다. 흑인들도 찬양을 몹시 좋아해서 한 번 이 나쁜 세시전 찬양 찬양이 된다. 몸은 두꺼비나 혼돈과 박수는 어쩌나 치는 저 젊은이들도 어리버리 따라갈 뿐이다. 그러나 흑인들의 찬양기세를 압도하며 춤추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관사님이다. '참 축복받은 분이시다' 그 생각했다. 하나님 사랑은 듬뿍 받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해외훈련을 마치고 며칠의 휴식중에 평가회하는 날이었다. 웬지 떨렸었다. 헛된 상관사님만 안았었다. 평가회를 마치고 기도회시간, 목사님께서는 상관사님의 기도를 부탁하셨다. 암이 이미3까지 진행된 환자였다는 것이다. 살기가 가질 없었다. 그 헌신한 축복받은 사람이 암환자였다니... 그 속이 아픈 불명이 없었어. 가슴에 암을 품고 신교에 소명을 감당하려 하는 상관사님. 당신은 주님께 직접 직접 편지임을 지혜로운 항상 기뻐하십니다. 빨리 회복해서서 더 좋은 편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권오영 기자)

